

정보양식의 변화와 건축계의 대응

The Change of Information Media in Architecture

동정근 / 인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Dong Jung-Kuen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떠다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기존의 일방향(1way) 미디어인 인쇄물을 하루에 수십 종을 접하고 있고, 유무선 방송 채널은 수십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당황하게 만들고, 디스켓이나 CD에 수록된 엄청난 정보는 공식·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주변에서 유통되고 있다. 또한 PC통신의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양이 우리의 주위를 흘러 다니고 있다. 정보양식은 벌써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벌써 정보화사회 속에 깊숙이 빠져있는 것이다.

특히 건축계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된 양질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각 단체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디지털정보를 제공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정보양식이 변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건축 정보화의 방향에 대하여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 정보이용자로서 느끼는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첫째, 정보는 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정보는 썩는다.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들이 욕심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내부에서만 돌다가 상업용으로 만들어진 더 나은 국내 혹은 외국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의하여 무력화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국내 굴지의 설계사무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설계지원시스템으로서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정보의 빈약함과 낮은 완성도로 인해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외국의 프로그램에 밀리는 아쉬운 일도 생기지 않았던가?

둘째, 정보의 貧益貧 富益富 현상이 우려된다. 건설회사나 대형 설계업체의 경우 자신들의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려 들 것이다. 정보의 소유욕은 금전의 그것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없는 사람들의 귀중한 정보를 자신들이 가진 싸구려 정보와 맞바꾸는 일도 생기게 된다. 과거의 산업경제사회에서는 물자의 흐름에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과 달리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흐름에 시간 제약이 없고 인력이나 자본과 같이 물리적인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빨리 발생한다. 문제는 정보사회에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극복된다는 데 있다.

즉 미국의 거대 정보회사에서 나온 양질의 정보를 대부분의 이용자가 놓치려 들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하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특정 검색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것처럼 미국의 한 대학생이 만들어 놓은 건축DB에 모든 한국의 건축계가 매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건축설계에 이어서 건축정보 시장마저도 외국에 뺏기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보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건축정보화에 대한 관심은 현대 건축인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는 동일한 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하며 동일한 데이터의 가공에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복투자는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흥미거리만 제공하게 된다.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세도를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를 자주 보지만 정작 쓰고자 하는 디테일을 찾기는 어렵고 이미 상당수 남아버린 데이터들이나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건축허가를 위한 그 많은 양식들이나 시방서마저도 각 사무실마다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건축통계나 건축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전문화된 정보를 통해 초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디지털 데이터는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그 가치의 차이는 아주 크다. 사실 대부분의 最高價 정보를 쓰레기나 다름없는 정보들의 전문적인 가공에 의하여 재창출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의 고부가화에는 상당한 자금과 인력이 소요되며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정리된 정보는 새로운 쓰레기를 만드는 결과이며 이러한 정보는 천대받을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 모조에 대한 문제, 지적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 시점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표어는 걸어 놓았으나 시행착오를 거듭한다면 정보화시대에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예측되는 문제들을 빨리 발견하고 즉시 해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현시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몇가지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정보의 흐름을 위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정보는 통신망에서 흘러 다닐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보를 통신상에서 가져가는 이용자가 있고 주물럭거리다가 또다시 정보의 바다에 뿌려지고 이를 또 다른 이용자가 가져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정보의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가 있는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건축단체·건축사·학교·연구소·기타 관련자들은 정보이용자인 동시에 제공자인 것이다. 이를 묶어주는 시스템(Network로서의)들이 있어야 하며 그 배경이 인터넷이든 별도의 통신망이든 많은 대상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계에서는 정보의 종합DB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의 선정과 운영에 대하여는 업체나 단체수준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연구원의 DB를 이용하고 시스템과 기술지원을 받아 각 건축단체나 학교에서는 단체특성에 맞는 전문영역을 설정하고 건축관련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보는 어떤 한 개인, 단체나 기업만이 독점할 수는 없다. 정보는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 非統制된 상태로 창조적 부가가치를 위해 가공되어 스스로 進化해야만 정보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일단은 많은 정보창출이 있어야 하겠지만 살아 움직이면서 진화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한다. 설계정보의 경우 대기업이나 그밖에 뛰어난 여러 회사들 모두가 자기욕심을 버리고, 가지고 있으면 고여서 썩어질, 썩지 않더라도 사이버 스페이스의 진화된 정보들 보다 틀림없이 낡게 될 정보를 과감히 공개하자.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최첨단 대기업보다 더 나은 기술을 계속해서 앞질러 갈 자신이 있다면 예외겠지만... 정보 독재는 허황된 꿈일 뿐이다. 정보를 독점하고자 하는 생각은 관련단체나 업체의 중복투자로 인해 귀중한 자원이 손실될 뿐이다.

정보의 공개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보란 어떤 한 개인이나 단체·기업 혼자서 만들어 낼 수 없다. 정보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형성되는 방식은 도시형성과정과 유사하다. 어떤 정보의 도시를 구축하는 것은 그 정보의 도시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와 질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즉, 정보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들은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도시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의 도시에서도 현실의 도시와 같이 도시하부시설인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토지공개념이 있듯이 정보공개념이 성립되어야 한다. 공개념 하에서 정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건설되어야 한다.